

初期近代化의 成功要因

— 日本의 境遇 —

呂 井 東

< 目 次 >

I. 序 論	6) R.N. Bellah의 見解
II. 日本近代化의 類型	3. 暫定的 結論
III. 初期日本近代化의 成功要因	1) 上記 學者들 見解의 綜合整理
1. 序	2) 「態度·價値觀」의 측면에서 본 成功要因
2. 여러 學者들의 見解	3) 「近代化推進勢力」의 측면에서 본 成功要因
1) James C. Hsiung의 見解	4) 「制度的 構造」의 측면에서 본 成功要因
2) S.N. Eisenstadt의 見解	5) 「戰略」의 측면에서 본 成功要因
3) Barrington Moore, Jr.의 見解	
4) Marius B. Jansen의 見解	
5) Herbert Passin의 見解	

I. 序 論

本稿는 日本初期近代化의 成功요인을 살펴 보려는데 있다. 그 成功요인은 주로 日本近代化類型을 설정할 수 있는 條件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근대화」와 「발전」을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¹⁾ 本稿에서는 양자를 類似同意語로 사용한다.⁽²⁾ 그러므로 근대화란 곧 發展을 의미하게 된다.

Lucian W. Pye 가 근대화(그는 발전이란 말을 쓰고 있다)의 概念을 보는 측면에 따라

(1) Samuel P. Huntington 같은 이는 「發展」과 「近代化」를 구별하여 移動性과 參與를 중심으로 할 때에는 「近代化」란 말을, 그리고 제도화를 중심으로 할 때에는 「發展」이란 말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Development and Political Decay," *World Politics*, Vol. XVII, No. 3, April 1965, p. 393).

(2) 「近代化」와 「發展」을 類似同意語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Dankwart Rustow 나 S.N. Eisenstadt 등을 들 수 있다(Dankwart A. Rustow, "Modernization and Comparative Politics," in *Comparative Politics*, Vol. I, No. I, October 1968; S.N. Eisenstadt,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66, 참조).

10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³⁾ 近代化란 용어가 얼마나 多義의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초기근대화의 엄밀한 概念規定에 대한 논의는 且置하고 그 概念을 단순히 封建制度를 탈피한 근대중앙집권적 産業社會로의 移行過程으로 이해해 둔다. 日本近代化의 始發時期는 王政復古(1868년)를——論議의 여지가 많겠지만——기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本稿에서의 論議는 자연히 明治維新을 기점으로 전개된다.

세밀히 검토해 보면 日本의 초기근대화 과정은 밝은 면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自家撞着, 試行錯誤, 時代逆行 등의 어두운 면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明治初 약 10년 동안에 있었던 격렬한 농민반란은 분명히 體系發展에 逆機能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開明派 엘리트들의 半封建的인 의식구조와 그에 입각한 강력한 天皇制官僚國家 수립도 급속한 산업화에 관한 한에서는 크게 공헌하였지만 「平等」(이것은 일반적으로 근대화 기준의 하나로 생각되는 것이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逆機能을 하였다. 이와 같이 日本의 초기근대화에 대한 眞摯한 관찰자는 각자 여러가지 主·客觀의 평가를 하고 있다.

客觀의 이어야 할 研究者들의 日本觀이 매우 대립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는 「前提」의 상이로 말미암아 日本의 근대화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갈래로 彩色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日本근대화 과정은 보는 각도에 따라 明暗의 兩側面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日本初期近代化에 대한 否定的이고 逆機能的인 해석은 且置하고 肯定的이고 機能的인 해석만을 추출하여 정리해 보려고 한다.

論議의 순서는 먼저 「日本近代化의 類型」을 暫定的으로 設定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밑받침해 줄 수 있는 「初期日本近代의 成功要因」을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本稿를 작성하는 데는 전적으로 日本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學者들의 견해를 참조하였음을 부기해 둔다.

II. 日本近代化의 類型

傳統社會와 近代社會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F. Tönnies 가 共同社會(Gemeinschaft)와 利

(3) Lucian W. Pye 가 「政治發展」의 概念을 보는 측면에 따라 10 가지로 분류한 그의 見解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經濟發展의 政治的 必須條件으로서의 政治發展」 ② 「産業社會의 典型的인 정치로서의 政治發展」 ③ 「政治的 近代化로서의 政治發展」 ④ 「國民國家形成으로서의 政治發展」 ⑤ 「行政 및 法の 발전으로서의 政治發展」 ⑥ 「大衆動員 및 大衆參與로서의 政治發展」 ⑦ 「民主主義 建립으로서의 政治發展」 ⑧ 「安定과 秩序있는 변화로서의 政治發展」 ⑨ 「資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政治發展」 ⑩ 「多元的인 사회변화과정의 一面으로서의 政治發展」(Lucian W. Pye, "The Concept of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358, March 1968, pp. 1-12).

益社會(Gesellschaft)라는 二分圖式⁽⁴⁾ (dichotomous categories or dichotomous framework)과 E. Durkheim 이 機械的 連帶(mechanical solidarity)와 有機的 連帶(organic solidarity)라는 二分圖式⁽⁵⁾을 제시한 이래 二分圖式은 사회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또 실제로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다.

近代化의 類型을 분류하는데도 이러한 二分圖式의 적용은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다. 二分圖式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단순화 하였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복잡하고 論議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多岐圖式에 비한다면 훨씬 유용하고 편리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二分圖式과 (二分圖式이 갖고 있는 약점을 고려하는 뜻에서) 三分圖式으로 초기일본근대화유형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二分圖式은 임의적이긴 하나 「通說」과 「S.N. Eisenstadt의 理論」에 의거하고 三分圖式은 「B. Moore, Jr.의 理論」에 의거하기로 한다.

「通說」的인 二分圖式은 근대화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 도식이고 「S.N. Eisenstadt」的인 二分圖式은 근대화 始發期(點)의 차이에 따라 분류한 도식이다.

近代化論者들은 「通說」로서 근대화유형을 西歐類型과 發展計劃(Development by Design) 類型——일반적으로 DBD 類型이라고 한다——으로 나눈다. 西歐유형은 주로 「自生的」인 근대화를 말하고 發展計劃유형은 人爲的인 근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서구유형은 독재주의, 패시즘 및 전체주의와 같은 DBD 類型을 거부하고 모든 非西歐 發展途上國에서 엘리리트가 주도하는 변화의 목적의 중요성마저도 부정한다.……서구유형과 DBD 類型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政治的 社會化의 책임문제로 귀착된다. 서구민주국가에서는 정치적 사회화는 家族, 學校, 통신수단, 교회 등이 경쟁적 역할을 수행하는 광범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화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社會體系에 있는 것이지 정치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하여 DBD 體系에서는 정치적 사회화가 중앙집권적이어서 그것은 전체적 엘리리트

(4) F. Tonnies가 人間の 결합형태로서 들고 있는 유형이다. 共同社會는 인간의 本質意志(Wesen-Wille)에 의한 자연적, 情緒的 결합이다. 따라서 存在自體가 목적이며 그 전형적인 예는 家族, 村落 및 教會 등이다. 利益社會는 選擇意志(Kürwille)에 입각한 의도적이고 계약적인 결합이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때문에 결합한 것으로 그 存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전형적인 예는 營利會社와 같은 현실적 이해를 추구하는 結社體이다.

(5) E. Durkheim 이 인간의 結合樣式으로서 들고 있는 유형이며 동시에 進化論的인 발전의 유형이기도 하다. 機械的 連帶란 사람들이 個性이 없이 고도의 공통의식에 입각하여 成員들 상호간에 유사성을 보이는 결합양식이다. 有機的 連帶란 사람들이 個性이 있어 각자가 特殊化, 異質化되어 他者를 필요로 하면서 협력하는 결합양식이기 때문에 分業에 의하여 결합된 관계를 말한다.

(전반적인 변동의 지도자를 통제하는 엘리트)가 설정한 中心的 목적에 의해서 左右된다.”⁽⁶⁾ 그러므로 發展計劃類型은 西歐類型과는 달리 人爲的이고 計劃的인 근대화여서 말하자면 정치적 고려가 내포된 목적의식적인 근대화를 말한다.

S.N. Eisenstadt는 근대화의 始發點을 기준으로 하여 근대화를 第一階段類型과 第二階段類型으로 나누고 있다. 그가 말하는 第一단계유형은 18세기로부터 19세기에 걸쳐 진행된 것을 말하고 第二단계유형은 20세기에 진행된 것을 말한다.

S.N. Eisenstadt는 英國, 和蘭, 스칸디나비아諸國, 美國, 英語使用自治領, 佛蘭西, 伊太利, 獨逸, 露西亞 및 日本 등을 근대화의 제 1 단계유형으로 보면서도 이들 여러 나라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⁷⁾ 또한 그는 라틴·아메리카諸國, 멕시코나 터어키의 민족주의적·혁명적 체제, 中國의 공산주의체제 및 제 2차대전 이후 독립한 新生諸國 등을 근대화의 第二階段類型으로 보고 이들 여러 나라도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⁸⁾

「B. Moore, Jr.」의인 三分圖式은 ①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브르조아革命類型」 ② 패시즘을 탄생시킨 「未遂의 브르조아革命(abortive bourgeois revolution)類型」 ③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農民革命類型」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하여 부연하면 B. Moore, Jr.는 그의 力著『近代產業社會形成의 社會的 諸起源』⁽⁹⁾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에서 근대사회(그는 產業社會란 말을 쓰고 있다)로 전환되는 類型(그는 途程—routes—이란 말을 쓰고 있다)을 上記한 바와 같은 세 가지로 區分하고⁽¹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 (6) James C. Hsiung, “A Revisionist View of Modernization Theory—from the East Asia Perspective—,”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1971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rad Hilton Hotel, Chicago, Illinois, September 7-11.
- (7) S.N. Eisenstadt,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66; 呂井東·金晉均 共譯, 『近代化: 抵抗과 變動』, 探求堂, 1972, pp.61-94, 참조.
- (8) 呂井東·金晉均 共譯, 『上揭書』, pp.97-149, 참조.
- (9) 책 내용에 따라 筆者가 假題로서 붙인 책명이다. 이러한 假題下에서 필자는 『經濟論集』(서울 商大 經濟研究所刊, 第10卷 第3號, 1971, 9, pp.167-173)에 書評을 掲載한 바 있다.
- (10) B. Moore, Jr.는 印度의 경우만은 정치제도적으로는 브르조아革命類型과 흡사하나 실은 어느 유형과도 같지 않은 第4의 類型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印度는 적어도 어느정도의 西歐民主主義의 필요요건을 表皮의으로나마 갖추었지만 실은 위로부터의 자본주의적, 반동적 혁명(日本이나 독일처럼)이나 밑으로부터의 西歐的인 브르조아혁명을 겪지 못하여 근대화로의 추진력은 매우 취약한 처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엄밀히 따지면 B. Moore, Jr.는 근대화의 유형을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나눈 셈이 된다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eacon Press, Boston, Sixth Printing, 1970, Chapter VI, 參照).

① 브르조아革命類型——이 때의 브르조아革命이란 뜻은 英國에서의 퓨리탄혁명, 佛蘭西에서의大革命, 美國에서의 市民戰爭 등을 망라한 包括的 개념이다. 브르조아혁명類型은 英國, 佛蘭西 및 美國이 대표적이며 이들 국가는 자본주의와 西歐民主主義가 결합되었음이 특징적이다.

② 未遂의 브르조아革命類型——이 유형은 資本主義의 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패시즘으로 유도한 자본주의적 및 反動的 産業化形式을 말한다. 가장 현저한 例는 日本과 獨逸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나라는 브르조아들의 추진력은 매우 취약해서 西歐民主國家에서와 같은 브르조아혁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위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적 및 反動的 産業化 방식을 취하면서도 농민의 불만을 억압하여 農民革命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특색이다.

③ 農民革命類型——이 유형의 현저한 例는 소련과 中國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의 農業的 官僚主義는 독립적 商工業階級の 추진력과 성장을 가로막아 都市階層은 서구에서의 자본주의적 근대화유형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나 獨逸에서 수행한 근대화의 初期類型마저도 성취시켜 보기에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였고 반면에 농민계층은 공산주의의 리더쉽하에서 파괴적인 혁명적 세력으로 되어 브르조아혁명이 없는 가운데 농민혁명을 수행하여 舊秩序를 전복하고 全體主義的인 근대화의 길을 열었음이 특징적이다.

叙上한 바와 같은 「通說」的 二分圖式과 「S.N. Eisenstadt」的 二分圖式과 「B. Moore, Jr.」的 三分圖式에 따라 初期日本近代化의 유형을 요약하면 「제 1 단계에 속하는 未遂의 브르조아革命形式(자본주의 및 反動的 産業化형식)의 發展計劃(엘리트 主導發展)類型」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論據는 다음에 상술하는 「III. 初期日本近代化의 成功要因」을 보면 自明해진다.

초기일본근대화유형에서 흥미롭고 유의해야만 할 것으로는 東아시아에서 「제 1 단계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日本뿐이었다는 점과 「제 1 단계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보통 「西歐類型」의 근대화과정을 겪는데 유독 일본만은 「發展計劃(DBD)類型」이었다는 점과 또한 일본은 「未遂의 브르조아혁명유형」이면서도 農民革命도 不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본 특유의 초기근대화유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本論인 「初期日本近代化의 成功要因」을 비교적 상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I. 初期日本近代化의 成功要因

1. 序

日本の 초기근대화를 성공시킨 要因을 연구하여 정리한 학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近代化의 어느 側面에 重點을 두느냐에 따라 또는 근대화의 概念規定이나 日本근대화의 時期設定의 차이에 따라 見解는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序論」에서 日本初期近代化를 근대주권국가적 産業社會로의 변동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시기를 王政復古로 설정했으므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일본근대화를 성공시킨 諸要因에 대해서 卓見을 제시한 몇몇 학자들의 勞作을 요약·소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主題」에 대한 暫定的 結論을 이끌어내 보려고 한다. 暫定的 結論에서는「態度·價値觀」,「近代化推進勢力」,「制度的 構造」 및「戰略」의 네 가지 측면에서 초기일본근대화의 성공요인을 정리해 본다. 여기에 소개하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는 筆者가 근대화 문제를 涉獵하는 과정에서「주어진 主題」에 적합한 본보기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任意抽出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하 要約·紹介하는 J.C. Hsiung 과 S.N. Eisenstadt 교수의 견해는 全般的이고 總括的 측면에서, B. Moore, Jr. 교수의 견해는 産業社會로 移行함에 있어서 農民과 地主階級이 수행한 역할의 측면에서, M.B. Jansen 교수의 견해는 態度(價値觀)의 측면에서, Herbert Passin 교수의 견해는 知的 측면에서, R.N. Bellah 교수의 견해는 政治的 價値와 宗教의 측면에서 고찰한 初期日本近代化의 成功要因들이다.

論議는 國內的 要因에 집중하고 國際的 要因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2. 여러 學者들의 見解

1) James C. Hsiung 의 見解⁽¹¹⁾

J.C. Hsiung 교수는 明治日本の 근대화가 급속한 속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서 ① 武士의 리더쉽하에서의 國家의 主導 ② 武士道로 상징되는 봉건정신의 遺産인 조직적 적응력 ③ 消費水準의 統制와 자본의 再投資 ④ 건전한 稅制와 財政體制 ⑤ 一般교육의 보급 등을 들고는 다음과 같이 敷衍하고 있다. “(日本近代化의) 주요 추진력은 武士들의 정치적 리더쉽으로부터 연유한다. 이 때의 武士리더들은 皇帝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대의 국가가 등장되기 전까지는 軍隊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다. 國家가 主導하여 첫째, 防衛의 필요 둘째, 經濟的 後進性 세제, 國民의 未成熟 네제, 政治參與에 대한 産業的, 商業的 리더들의 요구 다섯째, 武士들이 발전적 기회를 찾기 위한 필요 등등의 고려에서 많은 초기

(11) James C. Hsiung, *op. cit.*, pp. 16-17.

자본을 마련하여 産業育成을 재촉하였다. 日本封建主義는 契約的 關係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忠義, 恩惠, 義理 등으로 기술되는 主從(Oyabun-Kobun)思想으로 代表되는 특수한 相互人格的인 獻身體制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峻嚴性和 熱意와 獻身을 지켜야만 하는 武士道는 日本이 社會化하는 일반적인 規範으로 간주되었다. 외부적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는 봉건적 전통을 根幹으로 하는 凝集性이 없었다면 日本近代化는 아마 그렇게도 빨리 진척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明治日本은 「엘리트主導發展」(elite-sponsored development)의 가장 좋은 본보기를 나타내 주고 있다.”⁽¹²⁾

2) S.N. Eisenstadt의 見解

S.N. Eisenstadt 교수는 그의 主著『近代化：抵抗과 變動』에서 日本近代化過程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日本の 근대화는 專制的 寡頭制——1868년에 德川幕府를 顛倒한 明治時代의 寡頭政治家들——에 의해서 시발된 유일한 事例이며 이 日本의 전제적 과두제는 이들이 확립한 테두리 안으로 많은 새로운 사회세력을 吸收하고 비교적 오랜동안 근대화의 방향을 指揮하고 規制할 수 있었다. ……天皇傳統의 계승은 순전히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적 一體性의 주요한 축점과 내용으로도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明治時代의 과두정치가들은 傳統의 象徴을 육성하면서도 天皇의 명목상의 頭目이었던 舊政治體系(德川幕府)를 타도하고 또한 새로운 정치체계내에서 더욱 彈力的인 中心制度和 集合의 目標를 달성시키는데도 성공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엘리트는 政治分野에서 혁신을 강조하고 政治的, 行政的 활동에도 기막힐 정도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영역, 특히 教育활동과 經濟活動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강렬한 志向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자신 武士라는 2次的 貴族集團出身인 明治時代의 과두정치가들은 舊貴族과 武士의 대부분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權力을 폐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地位象徴과 經濟的(土地의) 기반도 폐지하지 않았으며 變革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회복된 전통적인 天皇의 상징을 종종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못지 않게 이 寡頭政治家들이 착수한 급속한 공업화사업의 충격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創出되었던 여러 都市集團들도 역시 성공적으로 이용되었다.”⁽¹³⁾

“日本에서의 정치적 革新과 意思決定의 축점이 明治體制의 초기에는 寡頭制와 新官僚制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두제와 새로운 관료제는 여러가지 政策을 公布하고 여러가지 이익집단을 규제하였지만 公式的인 代議制度나 여론에 의지하는 바는 별로 없었다. 그

(12) *Ibid.*, pp.17-18.

(13) 呂井東·金晉均 共譯, 『上揭書』, pp.86-88.

후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비로소 議會的 黨派, 政黨類似組織 및 여러가지 노동조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조직이 서서히 또는 계속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지배적 엘리트와 官僚制의 주요정책은 일본근대화과정에서 가장 눈부신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⁴⁾

叙上한 바와 같은 S.N. Eisenstadt 교수의 견해를 個條書的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 ① 天皇傳統의 繼承
- ② 武士가 主導하는 專制的 寡頭制
- ③ 社會세력을 흡수할 수 있는 彈力的인 中心制度의 확립
- ④ 舊基盤의 不廢止와 教育 및 경제활동에 대한 革新的 志向

3) Barrington Moore, Jr.의 見解

B. Moore, Jr. 교수는 그의 力著 『近代產業社會形成의 諸起源』(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의 第5章에서 日本近代化(그는 산업사회란 말을 쓰고 있다)문제를 農民과 地主階級이 수행한 역할이란 측면에서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먼저 B. Moore 교수는 초기일본근대화 추진세력으로 武士階級을 들고 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德川中期 이후 줄곧 武士階級의 경제적 처지는 악화되고 더구나 商業勢力의 등장으로 武士로서의 기능마저 상실되어 무사들은 浪人의 신세로 타락하여 그들은 안정되지도 못하고 存在理由도 발견하지 못하여 자연히 기존질서에 대한 批判精神과 현상변경의 사상이 미반되어 결국 幕藩體制를 붕괴시키고 明治維新을 추진하는 정치적 主體로서 활동하고 후일에는 새 정부의 官僚로서 일본근대화를 위한 추진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¹⁵⁾

그리고 B. Moore는 “解體된 일반적 범주로서의 封建主義가 일본사회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¹⁶⁾고 말하면서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산업사회로의 移行過程 전반을 통해서 日本 支配層은 농민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통제하고 무마할 수 있었다”⁽¹⁷⁾는 데서 일본사회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다.

또 B. Moore는 일본에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農民革命이 없

(14) 『上掲書』, p. 91.

(15) Barrington Moore, Jr., *op. cit.*, pp. 232-236; 車基壁 著, 『近代化政治論』, 博英社, 1969, p. 89..

(16) Barrington Moore, Jr., *op. cit.*, p. 253.

(17) *Ibid.*, p. 254.

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相互聯關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¹⁸⁾

첫째, 德川幕府의 稅制는 농민들로 하여금 일정한 액수만 내면 그들이 열심히 排出해 낸 追加所得에 대해서는 또 다른 稅金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 制度는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서 농가생산은 德川時代 후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明治治下에 시도 계속되었다.

둘째, 中國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日本의 농촌사회와 봉건영주와의 관계가 긴밀하였고 또한 그 다음에는 농민과 地主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결합된 사회였다. 동시에 역시 中國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農民社會는 현실적 및 잠재적 不平分子들을 現狀(status quo) 속에 吸收시키는 강력한 사회적 統制制度를 구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財產制度, 土地所有權 및 德川時代 후기에 유행한 相續制度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특수한 부업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셋째, 舊時代로부터 물려받은 抑壓的인 기구들과 아울러 근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기구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諸般制度는 상업적 농업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核心的인 요소는 농민의 대거 진출로 형성된 새로운 地主階級의 대두였다. 이들은 농민들로부터 쌀을 털어내어 시장에 팔기 위하여 국가와 농촌의 전통적인 여러 機構를 이용하였다. 封建的 관계로부터 小作制度로의 전환은 또한 사회의 맨 밑바닥에 있는 농민들에게 다소 유리한 것이었다. 요컨대 파시즘의 代價로 지난 날의 전통적 秩序를 물려받아 農民經濟를 산업사회로 귀속시킬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農民革命이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들고서 “그러나 농민들은 지도자들이 강력한 국가의 創出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權力을 유지하기 위하여 農民을 필요로 할 때는 그러한 조치를 후원할 수 있는 制限된 발판을 提供해 줄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¹⁹⁾고 B. Moore는 말한다.

또 B. Moor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寡頭政治的 構造, 內的인 결속 및 高位當局者들과의 효과적인 垂直的 關係 등 모든 것이 市場을 위한 현대적 생산양식에서의 전환을 별다른 변화없이 겪어 냈던 것이다.……그 설명의 核心은 地主들이 옛 村落構造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18世紀 영국의 지주나, 16세기 프로시아의 융커(Junker)나, 20세기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과는 달리 日本의 지배계급은 기존의 農民社會를 파괴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알았다. 전통적인

(18) *Ibid.*, p. 254-255.

(19) *Ibid.*, p. 275.

사회구조를 통하여 해냈던 일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라면 日本地主들도 틀림없이 다른 지주들과 꼭 마찬가지로 農村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²⁰⁾

지금까지 보아온 B. Moore의 論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武士가 주도하는 초기일본근대화의 달성
 - ② 農民革命의 不在
 - ③ 기존구조의 활용으로 현대적 생산양식으로의 원만한 전환
- 4) Marius B. Jansen의 見解

M.B. Jansen은 「近代化에 대한 日本人 態도의 變化」⁽²¹⁾라는 논문에서 態度(價値觀)의 측면에서 본 日本近代化의 성공요인을 고찰한 바 있다.

M.B. Jansen은 “비록 결과는 不可避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態度」의 면에서는 상당한 軸점의 一貫性(consistency)이 있었다. 「日本人의 태도」는 그 連續性과 一體性(coherence) 때문에 日本近代化를 고찰하는데 가장 알맞는 課題라고 할 수 있다. 이 連續性은 계승되어 온 文化的 諸要因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고 一體性은 일본이 지난날 줄곧 경험한 危機的 격변의 결과라고 간주될 수도 있다”⁽²²⁾고 前提하고서 「德川中期・18世紀」, 「幕末」, 「明治」時代別로 詳說하고 있다.

德川中期・18世紀: “우리들의 고찰의 대상으로 되는 세 가지 變數——中國에 대한 태도, 西洋에 대한 태도, 日本의 전통에 대한 태도——중에서 中國과 그 文化的 전통에 대한 태도가 18세기 지식인 世界觀의 중심이었음을 의심할 수 없다.”⁽²³⁾ “異端과 多樣性을 강조하는 나머지 18세기 日本이 그 세계관과 價値觀에 있어서 壓倒的으로 儒教的이었다는 사실을 隱微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²⁴⁾

그렇기는 하지만 “儒學教義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는 그 教義가 취급해야만 할 日本社會의 변화라는 사실이었다. 18세기의 著述家나 爲政者들은 모두 그들 사회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하나의 사실과 문제로서 인정하고 있다. 1700年 이래 貨幣의 不足, 惡貨의 대두, 그리고 그 결과로 파생된 가치의 下落 및 商人이 都市化된 武士와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村主가 武士를 대항하여 地方社會의 實力者로 되는 사회적 身分과 사회적 威身上의 변화 등이 사회적, 도덕적 解體의 기미를 초래하였다. ……이리하여 18세기 급속한 日本

(20) *Ibid.*, pp. 312-313.

(21) Marius B. Jansen,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in Marius B. Jansen ed.,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Princeton, 1969, pp. 43-97.

(22) *Ibid.*, pp. 44-45.

(23) *Ibid.*, p. 48.

(24) *Ibid.*, p. 53.

社會의 변화는 「日本的인 世界」(Japanese World)에 대해서 靜態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 教育水準의 上昇은 이러한 현상의 하나의 본보기로 된다.”⁽²⁵⁾

幕末: M.B. Jansen 은 “19세기 후반의 日本思想史는 國內的인 脆弱性과 外國의 위협에 대한 意識에 의해서 지배되었다”⁽²⁶⁾고 前提하고서 18세기 저술가들의 樂觀的인 語調와는 달리 19世紀의 저술가들은 語調가 激해 졌다고 지적한다. “概念的으로 「儒教的 天道」(Confucian Way of Heaven)는 中國에서나 日本에서나 추종해야만 할 「道」였지만 그것은 幕末 日本人이 高次的이고 보편적으로 유효한 規範으로서의 國際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었고 西洋에서 새로 到來한 사람들과 담판하는데 어떠한 合理性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기도 하였다. ……日本人의 세계관에서 中國은 이와 같이 中心的인 位置를 점해 왔는데 그러한 中國이 西洋에게 屈辱과 敗北를 당했다는 報導는 19세기 日本人의 태도를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²⁷⁾ 그리하여 西洋影響의 擴大過程과 西洋先例에 대한 평가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최초의 것은 儒教價値의 질서를 西洋에서도 인정하려는 노력이며 그리함에 西洋人도 禽獸의 일반적 범주로부터 人間의 일반적 범주로까지 승격하기에 이르렀다. ……서양이 점차로 舞台의 중심을 점하게 됨에 따라 日本의 이미지도 당연히 그 중요성과 내용이 변화되어 나갔다. 天皇이 中央集權化된 영역을 통치한다는 古典古代的 이미지는 지금 새로이 회상해 볼 때 西歐모델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었고 또 그 西歐모델은 中國의 超國民國家(Supra-National State)보다 더욱 성공한 것이었으므로 日本에게 더욱 적합한 모델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德川末期에는 급격한 態度變化가 歷然하였다. 再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德川末期는 急迫感和 위기감이 충만되어 있었다. 提唱된 정책은 여러가지 다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가지 형태로 對應한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危機는 一貫하였다. 긴 안목에서 보던 다가온 挑戰의 성질과 그 發生源이 광범한 對應路線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要請된 변화는 매우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身分이나 여러 형태의 人間간에 사상과 행동을 급격한 沸騰狀態로 몰아 넣었다. Hershel Webb 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래도록 無力했던 天皇의 의견조차도 이러한 評價分裂의 時代에는 새로운 의의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립경쟁하는 집단과 의견의 混沌으로부터 明治維新은 도래하였다.”⁽²⁸⁾

(25) *Ibid.*, p. 53.

(26) *Ibid.*, p. 54.

(27) *Ibid.*, p. 56.

(28) *Ibid.*, pp. 60-63.

明治：西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西歐化의 方針의 渦中에서도 日本人은 “日本것에 대한 自己卑下로부터 自己主張으로의 추이는 전형적이었다.”⁽²⁹⁾ 그리하여 지식인은 아직 뚜렷한 계급으로 형성되지는 못했었지만 그들은 現制度의 테두리 안에서 國益에 입각한 自助論을 앞세워 전국민을 고무·조직하여 國力の 貧弱과 不平等이라는 굴욕을 극복했던 것이었다.⁽³⁰⁾ 그리고 “日本傳統의 부활은 明治體制의 완전한 成熟을 가져왔다.……日本傳統을 이루는 것은 天皇制였다.……1800 년대에 改訂하여 復活된 日本의 「傳統」은 그 자체 당시의 內外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다이내믹한 對應物이었다.”⁽³¹⁾

叙上한 바와 같은 態度의 측면에서 본 日本 근대화의 諸要因에 대한 M.B. Jansen의 견해를 個條書의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듯 하다.

- ① 宗教(특히 儒敎)의 合理的 適用
 - ② 國益에 입각한 主體性의 확립
 - ③ 傳統(天皇制)의 復活
- 5) Herbert Passin의 見解

H. Passin 교수는 「近代化와 日本의 知識人——比較考察」이라는 논문에서 知的 측면에서 본 日本 근대화의 성공요인을 고찰한 바 있다. H. Passin의 견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明治前の 日本은 상당히 앞선 文化生活樣式을 자랑할 수 있었다. 德川幕府가 끝날 때까지는 幕府나 藩에 의한 높은 수준의 學校로부터, 私塾, 광범한 寺小屋(terakoya—佛敎學校), 기타 형태의 小學校에 이르기까지 각종 학교가 17,000 校나 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明治初期의 日本에서는 약 40%이상의 男子가 讀書能力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文化生活에의 기초는 德川幕府의 후반에 급속히 팽창한 학교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³²⁾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德川時代의 日本의 지식계급의 중요한 구성부분은 武士였으며 그들은 거의 전부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下層에 속하는 平民들도 특히 商人계급은 江戸, 大阪, 京都 등의 大都市나 一流의 商業都市에서 寺小屋이나 鄉學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교육을 받았었던 것이다.

교육의 普及에 따라 지식인이 많아짐으로 해서 “19세기 중반에서는 사회의 現狀에 불

(29) *Ibid.*, p. 65.

(30) *Ibid.*, pp. 65-67, 參照.

(31) *Ibid.*, pp. 70-72.

(32) Herbert Passin, “Modernization and the Japanese Intellectual: Some Comparative Observations,” in Marius B. Jansen ed., *op. cit.*, pp. 454-455.

만을 품게 되었고 新思想에 극도로 反應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추구하는 批判的이며 이데올로기적인 志向을 갖는 지식인이 많이 나타났음도 사실이다. 그러한 지식인들은 露西亞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의미로서의 참다운 인텔리겐차였다,⁽³³⁾ 日本의 인텔리겐차는 첫째로 그들의 出身階級과 경험과 儒教思想 때문에 강력한 公務感을 가지고 있었다.……따라서 日本의 근대지식계급은 Zeus 神의 모습으로부터 형성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복잡한 既存機構나 情勢로부터 진화한 것이다.”⁽³⁴⁾

“兩者間(지식인의 배출과 그 지식인의 收容能力)에 현저한 不均衡이 있게 되면 어려움이 따른다. 지식인의 數가 사회의 收容能力을 훨씬 능가하는 나라에서는 지식인은 不滿感, 疎外感, 鬱憤性, 過激性 등이 있다.……일본은 보다 幸運스러운 나라의 하나였다. 기를 쓰고 근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明治初期에는 학교교육이나 獨學을 통하여 사회에 배출된 모든 지식인들이 활동할 자리는 충분하였다.”⁽³⁵⁾

“마치 「西歐」에서 단조로운 뜻만이 아닌 것처럼 「日本의 傳統」도 그 의미하는 바가 一義的인 것은 아니었다. 知識인이 전통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요소는 거부하고 어떤 요소는 收容하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근대화한 전통을 완전히 또 즉각 배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近代의 部門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의 최종결과는 전통의 완전한 萎縮인지 아닌지는 결코 확실하지는 않다. 적어도 兩者(전통과 근대)는 오랫동안 共存할 수 있다.”⁽³⁶⁾ 또 H. Passin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지식인의 성격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매우 강력히 전통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략히 여기에 몇 가지 예를 제시해 본다. 첫째로 先生(Sensei)의 전통이 있다. 과거에 존경받았던 先生은 단순한 기술자나 전문가만은 아니었다. 그는 引導者, 指導者이며 또 完成者였다. 그의 학생으로 된다는 것은 더욱 분명히 말하면 그의 弟子로 된다는 것은 一生동안 복종과 존경을 포함하는 특수한 관계가 맺어짐을 뜻한 것이었다.……학생인 弟子는 선생에 대하여 충실히 봉사하고 선생에게 지도와 助力을 일생동안 의뢰하고 있다. 이 制度는 교실에서의 成果, 토론의 自由, 權威의 承認, 主導權, 학생의 出世와 같은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近代 知的 生活에서의 전통적 요소가 지속되는 다른 하나의 예로서 종종 들고 있는 것은 派閥이다. 개인은 그의 개성적인 才能이나 業績을 가진 一個人으로서가 아니라 派閥의 一員으로서 사회에 당면하게 된다. 파벌조직은 大學, 政府,

(33) 露西亞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텔리겐차란 既存權威, 傳統文化 또는 기존권력집단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단순한 技術的 專門人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34) Herbert Passin, *op. cit.*, pp. 460-462.

(35) *Ibid.*, pp. 478-479.

(36) *Ibid.*, pp. 482-483.

實業界에서 특정지위를 獨占함으로써 구성원에게 커다란 統制力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되어 왔지만, 進步的 지식인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남아 있다.……特定分野에서 頭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파벌에 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大學, 官廳, 實業界의 특정지위를 위해서는 그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派閥의 지지를 받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한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調和가 발견된다. 파벌의 제도로서는 근대적이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나 姿勢——파벌주의, 主從關係(Oyabun-kobun)관계——는 확실히 전통적이다.……끝으로 세 재번의 예는 내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일본지식인의 「公務意識」(The Sense of Public Vocation)이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武士에서 그 기원을 추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責任感 있는 武士는 公職에 있든 없든 公的 義務感을 가지고 國家利益과 번영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다. 지식계급이 非武士階級으로부터 형성될 때도 이러한 전통은 계속되었다. 여기에 現代日本知識人の 특이한 役割의 說明部分이 깃들여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단순한 전문가로서만이 아니라 Herbert Luethy의 말을 빌리면 「政治社會에서의 '道德的 守護者」로서의 自己像을 가지고 있다.”⁽³⁷⁾

이상과 같은 知的 측면에서 본 日本近代化의 성공요인에 대한 H. Passin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再要約해 볼 수도 있을 듯 하다.

- ① 教育의 普及
- ② 인텔리겐차의 近代的——혁명적이 아니라——인 改革
- ③ 知識人들을 전부 收容할 수 있는 能力
- ④ 傳統——先生, 派閥, 公務意識——의 存續
- 6) R.N. Bellah의 見解

R.N. Bellah 교수는 그의 力著 『德川時代の 宗教——前産業社會의 價値』(Tokugawa Religion—The Values of Pre-Industrial Japan—)의 맨 終章(7章)에서 日本近代化와 價値體系와의 관계에 대한 總體的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結論에서 R.N. Bellah 교수가 제기한 宗教와 政治價値的 측면에서 본 일본근대화의 성공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반적 결론으로서 내릴 수 있는 것은 日本의 강력한 政治體系와 支配的인 정치가치는 분명히 産業社會의 발흥에 적합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만약 西歐 資料만으로 高찰(검증)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歐洲經濟史에 관한 正統派의 견해로서는 특수한 정책은 종종 경제발전에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

(37) Ibid., pp. 484-486.

로는 經濟에 대한 「國家」의 간섭은 經濟 발전에 有害하다고 생각되어 왔다.……非西歐社會는 西歐社會와 같이 점진적인 蓄積過程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하려 해도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 근대 산업화에 소요되는 자본은 매우 방대한 것이어서 非西歐사회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경제기구로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무엇인가 산업화가 시작된 곳에서는 政府支配의 것이 아니면 政府出資의 형태를 취하였다. 왜냐하면 정부만이 필요하는 자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政治體系 및 政治價値의 強度가 결정적인 變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주요한 非西歐社會 중에서 日本이 강력한 정치체제와 中心的인 정치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存在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露西亞와 中國의 경우를 고찰해 보면 이러한 견해는 더욱 믿을 수 있게 된다. 러시아와 中國社會는 共產主義로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체제와 정치가치를 갖게 되었다. 사실 소련은 目標達成을 강조하는 사회의 거의 전형적인 경우다. 러시아는 西歐와 非西歐의 邊境에 처하고 있으나 非西歐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소련은 日本을 제외하고는 獨力으로 “主要工業國으로 된 유일의 非西歐國家였다. 中國은 소련보다는 확실히 非西歐社會지만 전통적 統合價値로부터 公산주의적 정치가치로 옮길 때 매우 현저하게 工業化를 示顯하고 있는 나라다. 中國은 工業化를 수행한 제 3의 위대한 非西歐社會다.……그들의 근대화가 어떠한 特異한 형태를 취하는 그리고 日本이나 公산국가의 예는 물론 매우 다르지만, 政治價値와 강력한 政治力이 현대의 후진지역에서 工業化를 추진시키는 커다란 利點으로 되었고 아마 그 前提條件으로까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두번째로 일반적 결론으로서 내릴 수 있는 것은 「宗教」⁽³⁸⁾가 일본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合理化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中心價値에 대한 信奉을 지지강화하고 필요한 정치적 혁신을 위한 動機와 正統性을 부여하고 근면과 절약을 강조하는 世俗內禁欲主義倫理⁽³⁹⁾(an ethic of innerworldly asceticism)의 강화 등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또 宗教는 工業化에 적절한 中心的 가치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아마 확실하다.……宗教는 중심적 가치체계의 信奉을 이러한 價値體系가 究極

(38) R.N. Bellah는 宗教란 “究極의 關心(Ultimate Concern)에 관한 人間의 태도와 行動”이라고 정의하고(R.N. Bellah, *Tokugawa Religion-The Values of Pre-Industrial Japan*-, The Free Press, Glencoe, Illinois, 1957, p.6) 明治維新前後의 日本의 宗教組織으로서는 佛敎, 儒敎, 神道 및 先祖崇拜(ancestor worship)에 초점을 두고 있는 家族宗教를 들고 있다. (*Ibid.*, pp.51-57, 참조).

(39) 世俗內禁欲倫理(主義)란 M. Weber의 概念이다. M. Weber는 宗教行爲를 분류하여 禁欲과 神秘主義 두 가지를 열거하고 前者는 인간이 神의 道具요 後者는 인간이 神의 器(器)이라고 하는 神과 人間의 관계로부터 종교는 成立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禁欲도 世俗에 들어가는 경우와 世俗으로부터 逃避하는 경우의 두 가지를 들고 前者를 世俗內禁欲, 後者를 世俗外禁欲이라고 한다.

的 의미에 있어서, 의의있다는 것에 의해서 強化되었다. 家族과 民族은 단순히 世俗의인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宗教的 存在이기로 하였다. 父母라든가 政治的 上位者는 그들 주변에 그 무엇인가 신성한 것을 갖고 있으며 神의 下位的 階梯에 불과 하였다. 上位者에 대한 자기의무의 수행은 究極的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장래의 神의 恩惠와 究極的 보호의 영속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것만이 流轉하는 세계의 苦難이나 위험으로부터 個人을 구제하는 유일의 것이었다.……宗教는 일반적 측면에서나 宗派的 측면에서나 一種의 가치에 의해서 사회의 統合에 기여했는데 우리들은 그와 같은 가치가 산업화가 수행되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日本의 산업화에 공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더우기 종교는 정치적 合理化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그것은 모든 다른 사소한 의무를 대항할 수 있는 壓倒的인 종교적, 정치적 實踐을 강조함으로써 王政復古의 동기와 正統性을 부여하였던 것이다.……노동에 대한 열성적이고 公平한 의무와 자기소비욕을 抑制하는 의무는 日本의 종교에서는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신성한 上位者에 대한 의무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으며 또 究極的인 本性和 合一하는 無我的 상태와도 결부되어 있다. 이미 여러번 살펴 본 바와 같이 日本의 종교는 勤勉과 節約을 강조하여 신성자에 대한 의무의 수행과 邪惡한 충동과 욕망을 갖는 自我를 淨化하는 것에 의해서 근면과 절약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한 倫理가 깊이 경제적 合理化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M.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 연구의 主眼點이며 우리들은 일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40)

이상에서 고찰한 R.N. Bellah의 견해는

- ① 산업화 발흥에 유용했던 강력한 정치체제와 경제가치에 우선하는 정치가치와
- ② 정치적, 경제적 合理化過程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宗教를 일본근대화의 성공요인이었다고 再要約할 수 있을 듯 하다.

3. 暫定的 結論

1) 上記 學者들 見解의 綜合整理

지금까지 고찰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 相衝되는 요인은 극히 드물고 대체로 공통적인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추구하는 입장에 따라서는 근대화의 성공요인을 「態度・價値觀」, 「근대화추진세력(엘리트)」, 「制度的 構造」 및 「戰略」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측면을 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下位側面으로 세분

(40) R.N. Bellah, *op. cit.*, pp.192-196.

하여 다룰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試圖에 대처할 만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는 論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하여 本稿에서는 그러한 시도는 보류해 두기로 한다.

叙上한 바와 같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초기일본근대화의 여러가지 성공요인을 풀어서 그 하나 하나를 「態度・價値觀」, 「近代化推進勢力」, 「制度的 構造」 및 「戰略」의 어느 측면에 속하는가를 一目瞭然하게 하기 위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한 가지 요인이 두 가지 이상의 측면에 속한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표 1> 「態度・價値觀」에 속하는 要因

學 者 名	J.C. Hsiung	S.N. Eisenstadt	B. Moore, Jr.
成 功 要 因	②	①	②
學 者 名	M.B. Jansen	H. Passin	R.N. Bellah
成 功 要 因	① ③	② ④	① ②

<표 2> 「近代化推進勢力」에 속하는 要因

學 者 名	J.C. Hsiung	S.N. Eisenstadt	B. Moore, Jr.
成 功 要 因	①	②	① ②
學 者 名	M.B. Jansen	H. Passin	R.N. Bellah
成 功 要 因		③	

<표 3> 「制度的 構造」에 속하는 要因

學 者 名	J.C. Hsiung	S.N. Eisenstadt	B. Moore, Jr.
成 功 要 因	④	③ ④	② ③
學 者 名	M.B. Jansen	H. Passin	R.N. Bellah
成 功 要 因	③	③ ④	①

<표 4> 「戰略」에 속하는 要因

學 者 名	J.C. Hsiung	S.N. Eisenstadt	B. Moore, Jr.
成 功 要 因	③ ④ ⑤	④	② ③
學 者 名	M.B. Jansen	H. Passin	R.N. Bellah
成 功 要 因	① ②	① ②	

2) 「態度・價值觀」의 측면에서 본 成功要因

「態度・價值觀」의 측면에서 본 初期日本近代化의 성공요인을 <표 1>에 따라 정리해 보면 ① 武士道 ② 傳統의 계승 ③ 宗教의 合理的 適用 ④ 支配엘리트가 갖고 있는 경제가치에 優先하는 政治價值觀 ⑤ 知識人들의 자주적이고 자조적인 態度 등으로 요약된다.

日本の 封建主義는 契約的 관계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도 忠義, 恩惠 및 義理 등으로 기술되는 主從關係의 특수한 상호인격적인 獻身體制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武士道는 峻嚴성과 熱意와 外的 권위에 대한 존경을 주로 하였음은 이미 上述한 바 있다. 이러한 武士道는 일본이 社會化하는 일반적인 規範으로 간주되었다. 봉건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는 武士道的인 凝集性이 없었다면 일본근대화는 아마 그렇게 빨리 진척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실로 武士의 倫理는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徳川時代의 商人이 비교적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던 主導性의 자질을 武士는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身分上의 고려가 강력히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종전에 높은 신분에 있었던 것이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R.N. Bellah가 「武士精神」은 의연히 明治 산업을 활동케 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었고 武士의 倫理가 「資本主義」발전의 가장 강력한 요소였다고 말하고⁽⁴¹⁾ 三菱의 창시자인 武士 岩崎家の 家訓⁽⁴²⁾을 「武士倫理」의 近代산업가의 입장에서 가장 흥미있는 적용이라고 간파한 점은 卓見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初期近代化推進勢力은 전통을 일체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중 어느 것은 收容하는 선택적 태도를 취하였다. 傳統繼承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든다면 天皇의 象徵, 先生意識, 派閥意識 및 公務意識 등을 들 수 있다. 급격한 外來文化 도입으로 조성된 정신적 眞空狀態를 메우고 국민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天皇이라는 전통적 상

(41) *Ibid.*, p. 186.

(42) 岩崎家の 家訓은 다음과 같다.

第1條, 작은 일에 집념하지 말고 큰 일에 전념할 것을 목적으로 하라.

第2條, 일단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그것을 성공시켜라.

第3條, 投機的 事業에 종사하지 말라.

第4條, 모든 사업은 국가이익을 감안하여 경영하라.

第5條, 순수한 公共奉仕精神과 참(makoto)된 정신을 저버리지 말라.

第6條, 열심이 일하고 절약하고 남을 생각하라.

第7條, 適材를 適所에 사용하라.

第8條, 고용인을 잘 대접하라.

第9條,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답하되 그 실행에 있어서는 細心하라. (*Ibid.*, p. 187에서 再引用)

정을 최대한으로 계승하였고⁽⁴³⁾ 또 天皇傳統의 계승은 순전히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라 당시 内外로부터의 자극에 다이 나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적 一體性的의 주요한 초점과 내용으로도 이바지 하였던 것이다.⁽⁴⁴⁾

그리고 특히 초기일본근대화에 있어서 전통계승은 [Herbert Passin의 見解]에서 보았듯이 「先生에 대한 의식」, 「派閥意識」, 「公務意識」 등으로 나타난다.⁽⁴⁵⁾ 복종과 존경을 근간으로 하는 師弟間的의 의식은 인도자나 지도자를 위한 충실한 奉仕精神으로 나타났고, 또 사람은 個性的인 一個人이라기보다 파벌의 一員이라는 파벌의식은 主從關係와 統制關係를 確然히 하였고 武士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公務意識은 「政治社會에서 道德的 守護者」의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엘리트主導的인 일본근대화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日本の 宗教(그것이 儒教이든 佛敎이든, 神道이든)는, R.N. Bellah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合理化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중심적 가치에 대한 信奉을 지지·강화하였고, 필요한 정치적 혁신을 위한 動機와 正統性을 부여하였고, 근면과 절약을 강조하는 世俗內禁欲主義倫理를 강화하였다.⁽⁴⁶⁾ 특히 外部에서 傳來한 종교(특히 유교)는 보편적으로 유효한 規範으로서의 國際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또 외부세계를 판단하는 合理的인 道具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종교의 合理的인 適用은 西洋先例를 오직 禽獸의 범주에서 人間의 일반적인 범주로 승격시키는데 유용하였다. 결국 종교의 合理的 적용은 西洋접촉의 合理的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근원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宗教의 合理的 適用은 초기근대화 추진을 위한 日本敎義의 기본이 되었던 것이다.

非西歐社會 중에서 日本은 강력한 政治體系와 中心的이고 支配的인 政治價値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日本의 초기근대화과정에서 經濟價値도 경시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정치가치에 從屬되는 지위에 놓여 있었다. T. Parsons의 圖式的인 표현을 빌리면 經濟價値는 「普遍主義」(universalism)와 「遂行」(performance)의 類型變數를 특징으로 하는데 대하여 政治價値는 「特殊主義」(particularism)와 「遂行」의 類型變數를 특징으로 한다.⁽⁴⁷⁾ 이렇게 볼 때 일본의 초기근대화 추진세력은 普遍主義보다 特殊主義를 바탕으로

(43) Shigeru Yoshida, "Japan's Decisive Century," Britannica, Books of the Year 1967, Encyclopedia Britannica, Inc., p. 24.

(44) 呂井東·金晋均 共譯, 『上揭書』, p. 87.

(45) 本論文註(36)을 참조.

(46) 本論文[R.N. Bellah의 見解]를 참조.

(47) R.N. Bellah, *op. cit.*, pp. 3-5, 참조.

하여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政治價值 優先的이고 特殊主義的인 志向은 孝行은 忠誠에 종속되고 團體는 家族에 우선한다는 結果로 나타났던 것이다. (48)

어떻든 일반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통제와 정치가치의 우위는 經濟發展과 경제적 合理化를 저해한다는 通說과는 달리 R.N. Bellah 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분명히 산업 사회발흥에 적합하였음이 특징적이다. (49)

西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西歐化의 방침과 서구영향의 渦中에서도 일본 지식인들은 日本 것에 대한 自己卑下가 아니라 自己主張을 하였고 既存 權威나 기존문화나 기존집단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國益을 앞세우는 自助論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突然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기존기구나 기존정세로부터 진화된 말하자면 전통적 요소가 溫存된 상태이기 때문에 革命的 方法을 止揚하고 진화적인 개혁방법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전통과 근대가 무리없이 오래도록 共存할 수 있는 結果를 낳게 하였던 것이다.

3) 「近代化推進勢力」의 측면에서 본 成功要因

初期日本近代化 추진세력은 知識人階層, 商業階層, 農業階層 및 武士階級을 들 수 있다. 前3者는 초기일본근대화 추진의 직접적인 하나의 힘은 되었지만 主導的이고 최종적인 원천으로 되지는 못하였다. 뭐니 뭐니해도 明治日本の 再生의 주요한 원동력은 武士階級이었다.

知識階層에 대해서는 [M.B. Jansen의 見解]에서 상세히 살펴 본 바 있다.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明治維新 前後의 일본 지식인들은 西歐新風이 물밑듯이 밀어 닥치는 渦中에서도 日本 것에 대한 自己卑下로부터 自己主張을 견지할 수 있는 主體性을 확립하였고, 또 당시 일본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國益에 입각한 自助論을 앞세워 국민을 고무, 격려하여 國力の 貧弱과 不平等이라는 굴욕을 극복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은 뚜렷한 계급으로까지는 형성되지 못하여 주도적인 추진력으로 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였다.

商業勢力과 農業勢力에 대해서는 B. Moore 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B. Moore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사회에서의 商人의 역할은 中世後期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에서의 유태인의 역할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武士貴族과 상인과의 관계를 共生的 敵對(symbiotic antagonism)관계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이리하여;

(48) *Ibid.*, p. 18.

(49) *Ibid.*, pp. 1-9, 參照.

德川體制의 안정의 바탕인 계급간의 굳건한 장벽이 무너져 버릴 심상치 않은 징조가 보였다. 무사가 상인으로 되었으며 그 反對의 경우도 있었다.……19세기 초에 어느 250세대의 商人家族 가운데 48세대가 즉 거의 다섯에 하나가 무사의 후예였다.……封建貴族과 상인사이의 갈등이 앞으로의 발전에 매우 중대한 배경을 이루고는 있지만 이 점만을 단독으로 강조하는 것은 큰 잘못을 초래할 수 있다. 서구에서와는 달리 주위의 봉건적 권위로부터의 정치적, 법적, 독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憲章을 가진 自治的인 都市가 일본에서는 발달하지 못하였다.”⁽⁵⁰⁾ 일본은 초기근대화 추진세력으로 商業勢力이 현저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德川封建體制를 파괴하는데 主體가 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農民勢力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860년대 초반에 농민문제는 근대적인 군대를 창설하는 문제와 결부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主權國으로서의 일본의 독립뿐만 아니라 바로 일본사회의 성격에 영향을 끼쳤다. 본질적으로 정부는 外敵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농민을 무장시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長州에서는 그런대로 심각한 農民反亂이 있기는 했지만 1864년 長州要塞가 외국함대로부터 砲擊을 당했을 때 비로소 長州의 지도층은 對西方政策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심지어 농민의 무장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長州에 이런 部隊가 창설됨으로 말미암아 天皇의 親政支持勢力은 중요한 힘의 뒷받침을 얻게 되었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농민들은 反封建의이고 얼마간 혁명적인 세력을 王政復古運動에 기여했다. 德川時代末期에는 反封建의 색채가 짙은 수 많은 농민폭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었다. 비록 그들에게는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긴 했지만 그들은 지배계급의 하나의 위협이 되었다. 이런 농민반란에 대한 상세한 研究書에 의하면 이 시대 전체를 통해 모두 千餘件의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농민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지배계급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 주었다.”⁽⁵¹⁾ 이와 같이 농민들은 王政復古에 보조적인 前衛役割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분명한 政治的 목적없는 無組織的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一言而蔽之해서 商業勢力과 農民勢力은 초기일본근대화의 직접적인 원천의 하나이기는 하였지만 최종적인 주도세력으로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적 지배계급인 武士들이 어떻게 하여 明治日本의 再生의 주도적인 원동력이 되었을까?

德川封建體制下에서는 士·農·工·商의 계층적 신분질서가 엄존하여 武士는 지배계급

(50) B. Moore, Jr., *op. cit.*, pp. 236-238.

(51) *Ibid.*, pp. 241-242.

으로서 農·工·商 등 다른 계급위에 君臨하고 있었다. 幕府社會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명확히 구분되었고 무사계급은 농민들을 자기이익을 위해 땅을 갈고 세금을 내는 도구쯤으로 여겼다. 그러던 것이 德川幕府는 그들의 정치이념인 「平和」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차로 武士⁽⁵²⁾들을 급료의 수납자로 타락시키고 또 그들의 독자적인 세력근거를 없애는 정책을 썼다. 게다가 大名에 의지해 사는 무사계급의 경제적 처지도 德川治下 中期以後에는 현저히 악화되었다. 즉 大名은 수지계산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武士들의 급료를 삭감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면에서 地位가 저하된 무사들은 「安定」이 강요되었던 德川幕府下에서 해야만 할 두드러지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러던 중 富를 바탕으로 한 商人들의 새로운 權威가 나타나서 武士들과 優劣을 거름에 따라 무사로서의 기능은 가일층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그들의 忠誠心에 심각한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고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방황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많은 무사들은 大名과의 유대관계를 끊고 주인없이 떠돌아 다니는 浪人으로 되어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여 德川時代 후반의 社會的 不安의 요인으로 되었다. 1868年 王政復古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領地인 長州는 浪人들의 좋은 피난처였던 것이다.

德川治下 中期以後 안정되지도 못하고 存在理由도 발견하지 못하던 무사들은 자연히 기존 질서에 대한 批判精神과 現狀變革의 사상이 미탄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下級武士중 藩의 학교나 讀書 기타로 건문을 넓힌 청년들은 驟然한 幕末의 정세에 대해 날카로운 反應을 일으켜 幕政이나 藩政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로서 또는 求心點을 갖지 못하던 일반서민의 지도자로서 政治의 전면에 나서서 활약할 수 있는 絶好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下級武士들이 幕藩體制를 붕괴시키고 명치유신을 추진한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하고 후일에는 새 정부의 官僚로서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활약하게 되었던 근본이유였던 것이다.⁽⁵³⁾

4) 「制度的 構造」의 측면에서 본 成功要因

이미 [S.N. Eisenstadt의 見解]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의 근대화는 專制的 寡頭制와 新官僚制에 의하여 실시한 유일한 事例다. 明治初期의 전제적 과두제와 신분관계를 정치적 혁신과 의사결정의 촛점이 되었고 비교적 오랫동안 근대화의 방향을 지휘하고 규제하면서 그들이 확립한 테두리 안으로 많은 새로운 사회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 특히 天皇傳統을 계승한 彈力的인 中心制度를 확립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R.N. Bellah의 표현을 빌리자면 經濟價値에 우선하는 政治價値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정치체제가 일본근

(52) 武士階級은 그들의 가족까지를 합치면 明治維新이 있었던 1868년에 全人口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200萬名에 달하고 있었다(B. Moore, Jr., *op. cit.*, p. 232).

(53) 車基壁 著, 『上掲書』, p. 49.

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明治初期에 天皇象徴을 앞세운 專制寡頭制나 新官僚制는 行政의 틀이나 軍事的 기초나 여러 계층의 효과적인 統制 등에 志向하기는 했지만 S.N. Eisenstadt 가 말한 바와 같이 要求의 표명이나 저항의 志向이나 모든 조직 등은 여전히 전통적 조건과 전통적 類型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議會制度, 法律制度 및 政黨制度 등은 매우 脆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⁵⁴⁾

日本근대화 과정에서 農民革命이 없었다. 농민혁명이 없었던 이유를 「制度的 構造」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⁵⁵⁾ 稅制面에서는 農民에게 温情主義的이었고 統治制度面에서는 농민의 잠재적 不平分子를 現狀의 테두리 안에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통제제도를 구비하고 있었고 傳統的 측면에서는 옛 村落구조를 옛 지주계급이 그대로 유지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寡頭政治構造, 內的인 결속, 治者와의 효과적인 垂直關係를 유지한데서 비롯된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는데 혁명은 커녕 오히려 농민들은 엘리트權力維持의 발판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農民反亂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王政復古 직후 얼마동안은 농민폭동의 위험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고 새 土地稅가 실시된 1873년에는 가장 격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명치정권 집권후 첫 10年동안 德川時代를 통틀어 보아도 類例가 없는 200여차례의 농민반란이 있었다. T.C. Smith 가 말한 바와 같이 “근대에 들어 일본이 사회혁명의 경지에게까지 접근해 간 것은 이 때 밖에 없었다.”⁽⁵⁶⁾고 말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민반란은 산발적이고 무조직적인 것이었다.

또한 일본 농촌사회의 構造的 특성을 명치초기의 강력한 政治體制는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위로부터의 근대화작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 농촌사회의 구조적 특성이란 德川時代로부터 물려 받은 봉건영주에 대한 농민의 충성심을 근대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돌리는 일이 별다른 副作用 없이 수행될 수 있었음을 말한다. 즉 일본의 농촌사회는 매우 딱딱하게 짜여져 있으며 동시에 印度나 中國의 농촌사회와는 달리 直屬上官의 영향이 강하게 침투할 수 있었고 또 오래 제도화된 通路가 있어서 上部로부터의 개혁요구가 그것을 통해 농민에게 도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요구는 지나친 것이 아닌 한에서는 呼應을 얻을 수 있었다.⁽⁵⁷⁾

(54) 呂井東·金晉均 共譯, 『上掲書』, p.91.

(55) 本論文[B. Moore, Jr.,의 見解]를 참조.

(56) Thomas C. Smith, *Political Chang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Japan: Government Enterprise, 1868-1880*, Stanford, 1955, p. 30.

(57) B. Moore, Jr., *op. cit.*, pp.281-282.

끝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大量으로 배출된 지식인들을 여러 분야의 제도적 구조속에 전부 收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지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분명 지식인들은 불만과 울분과 과격한 행동으로 일본초기근대화 과정에 차질을 초래토록 했을 것이다.

5) 「戰略」의 측면에서 본 成功要因

「戰略」의 측면에서 본 초기 일본근대화의 성공요인은 <표 4>에 따라 정리해 보면 ① 經濟政策 ② 政治價值優位政策 ③ 傳統利用政策 ④ 教育政策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정책면에서는 J.C. Hsuing 이 말한 바와 같이 國家(強力한 政治體系)가 主導하여 건전한 稅制와 財政體系를 갖추고 소비수준을 통제하고 初期資本을 마련하여 資本의 再投資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政府는 報德運動⁽⁵⁸⁾의 訓戒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보급시켜 근로와 儉約精神을 기루어 경제발전을 촉진토록 유도하였다. 政府의 道德的 訓戒政策은 生産을 장려시키게 되었는데 그 하나의 典型的인 例를 든다면 1868年(명치유신)의 개간지는 幕府初期의 그것보다 무려 3 배나 되었다는 것이다.

報德思想에 입각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은 幕末때보다 明治初期에는 더 적극적이었고 또 실로 효과를 많이 거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산업화에 유용했던 경제정책도 실은 일본 특유의 강력한 지배적인 政治價值優位政策으로 가능했음이 특징적이다. 西歐社會와 같은 自生的인 경제과정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日本으로서의 政治價值優位の 國家主導政策이 경제발전의 결정적인 變數였음은 우리들에게 示唆하는 바가 매우 많다.⁽⁵⁹⁾ 이것이 西歐類型과 전혀 다른 엘리트主導發展類型으로 되는 근원이다.

「戰略」으로서의 전통이용정책은 주로 天皇의 象徴繼承과 先生意識, 派閥意識, 公務意識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이용정책은 忠誠感과 공적 의무감을 고취시켜 主從關係를 교착화시켜 국민들은 權威를 승인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여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쉽게 달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기왕의 村落構造를 유지하고 또 기왕의 경제적 基盤을 전적으로 폐지아니한 것도 제도적 측면에서 본 「戰略」의 전통이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

(58) 報德運動은 二宮尊德(1787-1856)가 창시한 것이다. 그는 農民의 道德水準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농민의 경제적 생산을 개선할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였다. 그의 思想은 儒教, 佛敎 및 神道에 입각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실제적이며 단순한 가르침을 統一한 것이다. 報德運動은 資本의 活用과 축적을 직접 장려하였고 그것은 실로 宗教가 경제적 合理化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현저한 본보기다(R.N. Bellah, *op. cit.*, pp.126-131, 참조).

(59) 本論文(R.N. Bellah의 見解)를 참조.

다. 어쨌든 실로 日本은 여러 면에서 D.E. Apter 가 지적했듯이⁽⁶⁰⁾ 전통이용정책으로 근대화를 촉진시킨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戰略」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教育政策」이었다. 德川幕府는 大名들의 統御策으로 어느 정도의 武斷政策도 썼으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文治政策으로 「教育의 獎勵」에도 힘을 썼다. 「학문의 보급」은 幕末에 이르러 歐美文化를 섭취할 수 있는 內面的 준비를 갖춘 결과로 되었다. 어쨌든 학문의 보급은 근대화의 遲參者가 공업화나 정치발전을 추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R.P. Dore 교수는 德川末期에는 첫째로 교육의 絶對量이 증가하였고 地方의 富農들은 公的 원조가 별로 없는 私立學校 經營에 대폭 원조하였고, 둘째로 기초교육의 보급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셋째로 풍부한 지적자원은 근대화과정에 유용하게 쓰여졌고, 넷째로 교육의 政治的 의의로서는 교육보급으로 支配者와 대중간의 疎通手段이 발달되었고 그 소수층단의 구체적인 事例는 1870년에 와서는 文字로 表記된 命令에 의해서 行政이 사회의 저변에까지 전달되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⁶²⁾

德川時代의 교육의 三大目的——도덕적 向上, 유용한 기술의 習得, 善政에 필요한 지혜와 경험의 擴大——을 계승한 明治지도자들도 일반민중의 지식수준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國家統一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교육을 가일층 장려하였다. 교육의 존중사상과 교육의 장려정책으로 근대화과정에서 파생되는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가통일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日本이었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授]

(60) David E.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65, p. 332.

(61) 本論文[H. Passin의 見解]를 참조.

(62) R.P. Dore, "The Legacy of Tokugawa Education" in Marius B. Jansen, ed., *op. cit.*, pp. 99-103.